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핵 강압의 실효성 평가

북한 핵에 주는 함의*

정재욱**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 강압 위협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핵 강압을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방어적 강압과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 강압으로 구분하고, (1) 방어적 핵 강압이 공세적 핵 강압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2) 방어적 강압 중에서도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행동의 중단 요구가 현상 복귀 요구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2022~2024년의 6개 주요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일치 검증(congruence test)을 실시한 결과, 가설 1은 일정 정도 지지되었다. 즉, 방어적 핵 강압이 공세적 핵 강압보다 성공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가설 2는 관련 에피소드의 부족으로 판단이 유보되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는 피강압국의 결의 수준과 연계된 선택효과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실존적 이해관계가 걸린 우크라이나에는 핵 위협의 효과가 미미했으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NATO 회원국들에는 신중한 접근을 유도했다. 결론에서는 러시아 핵 강압 사례의 분석 결과에 근거,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핵 강압, 실효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핵 강압, 북한 핵전략

*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1. 서론: 문제의 제기

핵 강압(핵 사용 위협을 동반한 피강압국에 대한 정책 변경 요구)은 피강압국의 순응(compliance)을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인가? 만약 효과적이라면 어떠한 조건에서 효과적이고, 그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은 넓은 의미에서 핵무기가 가지는 ‘정치적 효용성(political utility)’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적 효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은 핵 사용 위협(nuclear threats)을 통해 대상국으로 하여금 자신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함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다.¹⁾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은 억지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지만, 강압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는 편이다.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현시점 한반도 내 핵 강압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핵 강압에 대한 연구는 핵 억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드문 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핵 강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잘 알지 못한다. 둘째, 핵 강압의 정치적 효용성은 국제정치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 강압은 피강압국의 정책적 현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핵 강압으로 인해 잦은 현상 변화가 초래된다면, 이는 국제정치적 불안정성을 낳을 수 있고,

1) 여기에서 사용한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주로 Barry M. Blechman and Douglas M. Hart, “The Political Utility of Nuclear Weapons: The 1973 Middle East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7, no. 1 (1982): 132-134 참고.

또한 핵 보유의 유인을 촉진함으로써, 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된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만약 핵이 억지 측면뿐 아니라 강압 측면에서도 유용하다면,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의 안보에 더욱 큰 위협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불안정과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 강압을 행동 중지/현상 복귀/현상 변경과 같이 방어적 핵 강압(행동 중지/현상 복귀)과 공격적 핵 강압(현상 변경)으로 세분화하고, 러시아 핵 강압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핵 강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방어적 핵 강압은 공격적 핵 강압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한 가지 사례 분석이 가지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강압 개념의 세분화를 통한 강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2장에서는 핵 강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러시아 사례 검증을 위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핵 강압 사례를 고찰한다. 사실상 하나의 전쟁이지만, 러시아의 핵 강압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핵 강압 중 6개의 에피소드를 선택하여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핵 강압은 실효적이었는지를 가설에 대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연구의 결과가 북한 핵에 관해 가지는 함의에 대해 기술한다.

2. ‘핵 강압’의 개념, 메커니즘과 선행 연구

1) ‘강압’과 ‘핵 강압’의 개념

토마스 셸링(Thomas C. Schelling)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강제(coercion)라고 규정하고, 강제를 다시 억지(deterrence)와 강압(compellence)으로 구분한다. 억지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강압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²⁾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강조할 점은 강압 개념의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강압을 적대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세 가지 유형의 강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³⁾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행동 중지를 요구하는 강압이다. 가령, 적대국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현상의 변경을 꾀한다면, 이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의 강압은 앞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현상 변경을 성취했다면, 단순히 행동의 중지가 아니라, 현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강압은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을 수반하는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유형의 강압이 앞의 두 가지 유형의 강압과 다른 점

2)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69.

3) Alexander L. George, “Coercive Diplomacy: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2nd ed., eds. Alexander L. George and William E. Simons (Oxford: Westview Press, 1994a), 7-11.

은 첫째, 전자의 두 강압은 이미 시작된 행동에 대한 중지 혹은 현상 복귀 요구였다면, 후자는 시작되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도록 요구한다는 점, 둘째, 전자는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강압이고, 후자는 현상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강압이다.⁴⁾ 가령, 상대방에 영토의 할양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세 번째 유형의 강압에 해당된다.⁵⁾ 보통 이와 같은 현상 변경 요구의 강압은 ‘검박(blackmail)’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⁶⁾

위에서 논의한 강압 개념에 근거하여, ‘핵 강압’의 개념도 규정할 수 있다. 핵 강압의 주요한 특징은 핵무기라는 위협 수단을 동원한 강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핵 강압은 기존 정책의 중지 혹은 원상회복 요구, 혹은 현상 변경을 수반하는 정책 변경 요구로, 불응 시 핵 사용을 시사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위협을 포함한다.⁷⁾

4)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L. George)는 이러한 의미에서 방어 목적의 강압을 특히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로 부른다. George, “Coercive Diplomacy: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7-8.

5) 김태현의 연구에서는 조지의 세 번째 유형의 강압은 정권교체 요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현상 변경의 요구는 쉐링의 강압(compellence)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관해서는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2012), 63 참조.

6) George, “Coercive Diplomacy: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7.

7)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4-5; Tom Sauer, “How Useful Are Nuclear Weapons in Practice? Case-Study: the War in Ukraine,”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7, no. 1 (2024): 202; Alexander B. Downes and Charles L.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Revisiting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Compellent Threats,” unpublished manuscript, 2024, 10, <https://ondisc.nd.edu/assets/566345/>

여기에서 다시 명시적 핵 사용 위협과 묵시적 핵 사용 위협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 혹은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요구된다. 명시적 핵 위협은 말 그대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최고지도자나 정부 고위 관리의 공개적 언급을 가리킨다. 가령,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10월 22일 해상봉쇄를 발표하는 TV 연설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적 보복 대응(full retaliatory response)”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명시적 핵 사용 위협의 예이다.⁸⁾

한편 핵과 관련된 군사적 행동이나 핵 대응 경보의 격상 등 핵을 이용한 위기의 고조를 묵시적 핵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쿠바미사일 위기에서는 묵시적 핵 위협도 활용됐다. 케네디 대통령의 TV 연설 이틀 후인 1962년 10월 24일 미 전략공군사령부(SAC)는 핵 대응 경보를 데프콘-3(DEFCON-3)에서 핵 실전배치의 전 단계인 데프콘 2로 격상했는데 이는 묵시적 핵 사용 위협으로 볼 수 있다.⁹⁾

2) 핵 강압의 메커니즘과 핵 강압 성공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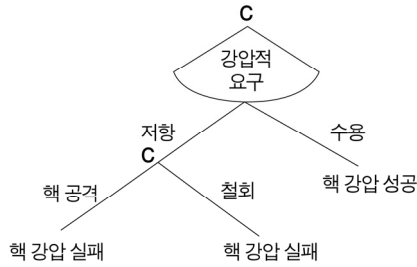
핵 강압의 실효성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핵 강압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을 통해 핵 강압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에서 C는 강압국을 의미

downes_glaser_compelling_with_the_bomb_jan2024_ndisc/.

8) Dan Altman, “Red lines: Enforcement, Declaration, and Ambiguity in the Cuban Missile Crisi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6, no. 5 (2023): 999.

9) Richard K. Betts,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11.

〈그림 1〉 핵 강압 모델



자료: 저자 작성.

하고, T는 피강압국을 의미한다.

우선 강압의 성공은 C의 요구에 T가 굴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C는 전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승리일 뿐 강압의 승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강압은 일종의 협상으로 볼 수 있고, 전쟁은 협상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⁰⁾

핵 강압 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핵 강압의 성공은

10) 전쟁을 통한 혹은 무력 사용을 통한 목적의 달성이 강압의 성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폭력 사용과 강압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Alexander L. George, "Foreword," in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eds.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viii. 강압에는 요구 불응 시 폭력의 사용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강압은 그 자체로는 일종의 협상이다. Todd S. Sechser, "A Bargaining Theory of Coercion," in *Coercion: The Power to Hurt*, eds. Kelly M. Greenhill and Peter Kra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5-76. 피어론(James D. Fearon)의 주장처럼,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사용은 협상(강압) 실패의 결과이다. James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no. 3 (1995): 379-414.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핵 공격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강압 요구를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 보다 엄밀히, 강압 요구 수용의 예상비용이 저항의 예상비용보다 작을 때 피강압국은 굴복한다. 반면, 핵 위협의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는다면(즉, 강압국이 위협을 철회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피강압국은 저항을 선택할 것이다. 강압국이 철회를 선택하는 것은 핵 공격 감행 비용이 철회의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경우, 강압국은 애초에 핵 강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론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핵 강압의 실효성은 위협의 신뢰성(credibility)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의 신뢰성이 클수록 순응의 가능성은 커진다.¹²⁾ 아래에서 논의할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의 검토: 핵 강압은 성공적인가?

핵 강압의 실효성에 관해 핵 강압의 실효성을 긍정하는 강압론자(nuclear coercionist)와 부정적인 회의론자(nuclear skeptics)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강압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핵이 가지는 파괴력 혹은 핵 우위 등으로 인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11) 여기에서 강압국의 핵무기 사용에 따른 비용이란 주로는 ‘핵 금기(nuclear taboo)’를 위반함에 따른 대내외적 정치적 비용이 될 것이다.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2) 이는 단지 강압뿐 아니라 억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은 Robert Powell,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다. 대표적으로 비어즐리와 아살(Beardsley and Asal),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³⁾ 특히 크로닉은 켈링의 벵랑끝전략과 핵 우위를 결합한 형태의 주장을 제시한다. 위기 고조를 통해 결의를 입증하고, 결국 이 결의의 투쟁(contest of resolve)¹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다시 말하면, 위협의 신뢰성은 핵 우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제서와 퍼만(Sechser and Fuhrmann)은 이러한 강압론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핵 강압 요구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핵 사용이 초래하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¹⁶⁾을 상쇄할 만큼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강압의 경우는 억지와는 달리 이러한 자신의 사활적 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¹⁷⁾

이처럼 강압론자와 회의론자는 강압의 신뢰성을 낳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강압론자들이 물리적

13) Kyle Beardsley and Victor Asal, "Winning with the Bomb,"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no. 2 (2009): 279-281; Matthew Kroenig,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Why Strategic Superiority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Kyle Beardsley and Victor Asal, "Nuclear Superiority and the Balance of Resolve: Explaining Nuclear Crisis Outco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no. 1 (2013): 141-171.

14) 여기에서 '결의의 투쟁'은 위기에서의 승리는 무력 충돌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결의"를 상대방에 신빙성 있게 전달할 때 쟁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99-105.

15) Kroenig,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15-26.

16) 여기에서 비용이란 앞서 언급한 핵 사용 금기를 깬 것에 따른 국내외적 비난과 같은 정치적 비용을 주로 의미한다.

17)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45-51.

우위를 중시한다면, 회의론자들은 사활적 이익의 여부를 중시한다. 따라서 강압의 성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문제는 강압론자의 입장에서는 핵의 존재나 핵의 우위이지만, 회의론자의 입장에서는 쟁점에 부여된 가치이다.

한편 다우네즈와 글레이저(Downes and Glaser)는 이에 대해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 핵과 같은 군사력의 우위가 강압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핵의 보유에 대한 정보가 피강압국에 어떤 깜짝 효과(surprise)를 낳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부분의 경우, 피강압국은 강압국의 핵 능력을 이미 알고 위기 상황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즉 위기 상황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상황(self-selection)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¹⁸⁾ 하지만, 핵이 존재 여부나 핵 사용 가능성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무기는 강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

그렇다면 핵 강압의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결과는 어떠할까? 앞서 든 세 연구는 모두 양적연구로, 각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⁰⁾ 하지만, 앞의 두 연구(비어즐리와 아살; 크로닉) 결

18) 이는 실험상황에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실험자들은 실험 조건에 무작위 할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택효과에 대해 위기협상모델을 통해 설명한 선구적인 연구는 James D. Fearon, "Selection Effects and Deterr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no. 1 (2002) 참조.

19)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27-31.

20)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핵 강압에 관한 선구적인 양적 연구로는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와 Michael Horowitz and Dan Reiter, "When Does Aerial Bombing Work?: Quantitative Empirical Tests, 1917-1999,"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 no. 2 (2001): 147-173을 들 수 있다. 또한

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이 두 연구에서는 핵 보유 혹은 핵 우위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핵 위협이 있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핵 그 자체가 양보를 유도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이들이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한 국제위기행태(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ICB) 데이터셋은 억지 혹은 강압 사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초래된 위기의 성격이 억지인지 강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의 승리가 억지의 성공인지 강압의 성공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²¹⁾

책서와 퍼만의 연구는 앞의 두 가지 문제 중 두 번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책서가 수집한 새로운 MCT(Militarized Compellence Threats)

핵 보유국의 핵에 대한 학습 효과에 의해 초기 핵 보유시의 행태와 이후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Michael Horowi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Does Experience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no. 2 (2009): 234-257의 연구 역시 핵 보유에 따른 강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핵 강압이 주요한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통제변수로 이를 포함한 연구로는 Christopher F. Gelpi and Michael Griesdor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3 (2001): 633-647를 들 수 있다. 겔피와 그리스도프의 연구를 제외하면, 위의 양적 연구들은 핵 강압의 실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핵 강압은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이만석·김선홍·함형필, “북한의 핵강압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9권 3호(2023), 25-56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후술하듯이, 본 연구에서 핵 강압의 실효성이 작다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의 핵 강압에 보다 충실한 데이터와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no. 4 (2013): 180.

데이터셋²²⁾에 근거하여 핵 강압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셋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 강압의 정의에 충실하게 강압 시 제기된 요구, 그리고 강압의 수용 여부 등을 데이터셋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핵 강압의 실효성을 핵무기의 존재 여부(핵 위협의 실제 여부가 아니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의 존재 여부는 강압의 성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앞의 두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핵 강압의 엄격한 정의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강압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데이터에서 핵의 실효성이 부정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²³⁾

제서와 퍼만은 자신들의 통계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1945년 이래 모든 핵 강압 사례를 수집,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²⁴⁾ 이들에 따르면, 핵 강압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제 핵 강압 사례의 수는 19개 정도로 파악된다.²⁵⁾ 그리고 이 19개의 사례 중에서 보다 명확하게 핵 강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3개 정도이고, 경계선에 걸쳐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의 수는 6개이다. 한편 19가지 사례에서 “외견상

22) Todd S. Sechser, “Militarized Compellent Threats, 1918-2001,”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8, no. 4 (2011): 377-401.

23) Sechser and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183-187.

24)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24-231.

25) 저자들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사례를 선정했다. 첫째, 최소한 위기 당사국 중 한 국가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핵 위협을 공표해야 한다. 둘째, 위기는 중대한 핵 확산의 위험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핵 위협은 반드시 강압적 요구와 연결되어야 한다.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25-126.

〈표 1〉 핵 강압의 사례와 성공 여부(1946~2016)

핵 위기	연도	강압국	대상국	요구	성공*
한국전쟁	1950~1953	미국	중국/북한	한국전쟁 휴전 협정	O
인도차이나 전쟁	1954	미국	중국/소련/북베트남	제네바 협상에서의 양보	O
1차 대만해협 위기	1954~1955	미국	중국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포격)의 중단	O
수에즈 위기**	1956	소련	영국/프랑스	수에즈 운하로부터 군 철수	O
2차 대만해협 위기	1958	미국	중국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포격)의 중단	O
1차 베를린 위기**	1958~1959	소련	미국	서베를린으로부터 군 철수	X
2차 베를린 위기**	1961	소련	미국	서베를린으로부터 군 철수	X
쿠바 미사일 위기**	1962	미국	소련	쿠바로부터 미사일 철수	O
푸에블로 나포 사건	1968	미국	북한	푸에블로호의 반환과 선원들의 석방	X
베트남전**	1969	미국	소련/북베트남	베트남전의 종전	X
중-소 국경 분쟁**	1969	소련	중국	국경 협상으로 복귀	O
방글라데시 전쟁	1971	미국	인도	인도에 휴전 합의 요구	O
옴 키푸르 전쟁**	1973	이스라엘/미국	미국/이집트/소련	미국에 대한 지원 요청과 소련의 이집트 중재	O
포크랜드 전쟁	1982	영국	아르헨티나	포크랜드섬에서 아르헨티나 군 철수	X
카슈미르 전쟁	1990	파키스탄	인도/미국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주둔군 감축과 미국 개입	O
3차 대만해협 위기	1995	중국/미국	대만/중국/미국	중국: 독립 운동 중단(대만)/독립 지원 철회(미국) 미국: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중단	X

카르길 전쟁	1999	파키스탄	인도	인도에 카슈미르 영토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	X
인도-파키스탄 국경분쟁**	2001-2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대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 중단	X
한반도 위기	2013	북한	한국/미국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핵 국가 지위 인정	X

주: * 여기에서 제서와 피만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요구가 외견상 관철되었는가의 여부로 결정되었음. 하지만,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많은 성공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핵 위협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에 의해 핵 강압으로 분류된 사례들.

자료: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28을 참조. 요구는 원래의 표에 없으나, 내용을 통해 저자가 추가하였음.

성공으로 보이는 사례들(apparently successful cases)²⁶⁾의 수는 10개이고, 실패로 보이는 사례는 9개에 해당된다.²⁷⁾ 전체 19개의 사례 중에서 성공이 10개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핵 강압의 성공률은 50%를 상회하므로, 핵 강압의 실효성은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외견상 성공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핵 강압의 성공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잘 알려진 쿠바 미사일 위기 정도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⁸⁾ 이들이 수집한 19가지 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6) “외견상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여하튼 강압적 요구가 관철된 사례를 의미한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핵 사용 위협이 반드시 인과적인 맥락에서 강압적 요구의 관철을 낳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27-128.

27)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27-128.

28)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231.

핵 강압의 사례를 전수 조사한 다우네즈와 글레이저는 핵 강압의 사례가 책서와 퍼만이 파악한 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핵 강압에 해당되는 사례는 1945~2002년의 기간 동안 총 9가지 사례에 불과하다.²⁹⁾ 이들은 책서·퍼만과 동일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들이 강압으로 간주한 사례 중에서 여러 사례들을 억지(deterrence)로 간주하면서 제외하고 있으며,³⁰⁾ 또한 핵 위협이 불명확하거나 요구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외하고 있다.³¹⁾ 이 9

29)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14-15. 다우네즈와 글레이저가 핵 강압으로 분류한 9가지 사례들은 <표 1>의 핵 위기에서 **로 표시하였다. 다만, 이들은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1차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에 계속적인 핵 사용 위협으로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것 역시 핵 강압으로 간주하여 사례에 포함하고 있다. 왜 이 사례가 핵 강압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bert J. Art, "Coercion: An Analytical Overview," in *Coercion: The Power to Hurt*, eds., Kelly M. Greenhill and Peter Kra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6과 Robert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87-89 참고. 여기에서는 핵이 미국의 일본 본토에 대한 전면전에 앞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강압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30) 강압과 억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일단 일반 억지(general deterrence)가 실패하면, 억지와 강압이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도발한 국가의 행동을 멈추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강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억지가 실패한 후에 시도되는 즉각 억지(immediate deterrence)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억지 개념에 대해서는 Patrick Morgan, *Deterrence: Conceptual Analysis* (Beverly Hills: Sage, 1977), 31-43을 참고할 것.

31)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17-19. 또한 1973년 욕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핵 위협이나 1990년 카슈미르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핵 사용 위협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비핀 나랑(Vipin Narang)이 제시한 3가지 핵 태세(nuclear posture) 중에서 촉매적(catalytic)인 것이기 때문에(즉 핵 위협을 통해 적의 양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개입을 유도

가지 사례 중에서 저자들이 성공으로 파악하는 사례는 3가지 경우로, 1945년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항복 요구,³²⁾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그리고 1969년의 중소 국경 분쟁이다.³³⁾

위의 연구자들의 사례 연구 결과는 다음의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핵 강압의 사례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책서와 퍼만의 경계 사례를 포함하더라도 강압의 사례는 최대 19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 숫자는 좀 더 엄밀한 잣대로 평가한 다우네즈와 글레이저에 따르면 9개로 줄어든다.

둘째, 강압의 사례도 많지 않지만,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강압의 성공 사례는 더욱 드물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 강압의 성공 사례로 폭넓게 회자되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도, 책서와 퍼만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³⁴⁾ 아트가 핵 강압의 성공 사례로 평가한 1, 2차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서 다우네즈와 글레이저는 강압이 아닌 역지의 사례로 보고 있다.³⁵⁾

하려는 목적이므로) 이 두 가지 사례 역시 제외하고 있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14-21.

32) 각주 29) 참고.

33)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14.

34) 쿠바 미사일 위기와 미국 핵 강압의 영향에 대해 긍정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Marc Trachtenberg,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10, no. 1 (1985): 137-163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대표적인 입장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McGeorge Bundy, "The Unimpressive Record of Atomic Diplomacy," in *The Choice: Nuclear Weapons Versus Security*, ed. Gwyn Prins (London: Chatto & Windus, The Hogarth, 1984)를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핵 강압의 실효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에서는 책서와 퍼만의 연구가 핵 강압의 개념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핵 강압의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 강압의 보다 엄밀한 정의를 따르는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핵 강압의 사례는 많지 않고, 성공 사례는 드물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공 사례는 더욱 드물다는 점이다.

3. 이론적 분석틀: 핵 강압 성공의 조건에 관한 작업가설

이 절에서는 러시아의 핵 강압 사례 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러시아 사례를 좀 더 이론적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핵 강압의 이론적 메커니즘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보한 귀납적 추론 등에 근거하여 연구의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강압의 메커니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압의 성공은 핵 위협의 신뢰성에 좌우된다. 경험적으로, 사활적 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측이 결의의 투쟁에서 유리하다는 견해가 전력상의 우위를 중시하는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다. 강압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강압의 경우, 신뢰성 있는 시그널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⁵⁾ 이는 왜 강압이 억지보다 힘든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령 영토 수호를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상

35) Downes and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18. 아트 역시 1, 2차 대만해협 위기가 즉각 억지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rt, "Coercion: An Analytical Overview," 27.

36)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72.

유지적 억지 위협과 영토를 빼앗기 위해 핵을 사용하겠다는 현상 변경적인 강압 위협을 비교해 본다면,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기존의 연구도 강압이 억지보다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³⁷⁾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강압이 억지보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한다. 현상 유지는 가진 것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상 변경은 없던 것을 새로이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측은 지금까지 자신이 요구하는 것 없이도 지내왔다. 따라서 강압에 중대 이익이 달려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³⁸⁾ 이는 손실을 이득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³⁹⁾ 따라서, 중대 이익이 걸려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에 근거한 결의(resolve)의 과시 자체도 큰 신뢰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즉, 현상 변경적인 강압 요구는 이익과 결의의 신뢰성 면에서 현상 유지적인 요구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리에 근거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핵 강압 위협을 평가할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압의 개념을 중지, 현상 복귀, 현상 변경으로 세분화하면, 중지나 현상 복귀는 현

37)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100; Art, “Coercion: An Analytical Overview,” 17-19;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178;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78.

38)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30-32.

39)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no. 2 (1979): 363-391.

상 변경의 강압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현상 변경의 강압이 전형적으로 강압국가(compeller)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이라면, 중지나 현상 복귀 요구와 같은 방어적 강압은 사실상 많은 경우 즉각 억지의 목적으로 취해지는 억지국가(deterrer)의 행동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억지가 강압보다 수월하다는 앞의 논리를 따른다면, 현상 유지적 강압은 현상 변경적 강압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현상 유지적 강압에서도 중지 요구는 현상 복귀 요구보다 성공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중지 요구가 피강압국에 부과하는 비용이 더 작아 수용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⁴¹⁾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중지와 복귀와 같은 방어적 강압이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공격적 강압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 2. 방어적 강압 중에서 중지가 복귀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사례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중지/복귀/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40)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63.

41) Paul Gordon Lauren, “Theories of Bargaining with Threats of Force,” in *Diplomacy: New Approaches in History, Theory, and Policy*, ed., Paul Gordon Lauren (London: The Free Press, 1979), 195.

중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인 정책, 혹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중단을 피강압국에 요구하는 것.⁴²⁾

복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원래의 상태 혹은 특정한 상태로 되돌릴 것을 피강압국에 요구하는 것.⁴³⁾

변경: 강압국에 유리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성공의 개념은 피강압국의 순응(compliance)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⁴⁴⁾

- ① 완전한 성공(full compliance):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부분적 성공(partial compliance):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고, 이를 최소 6개월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경우이다.⁴⁵⁾
- ③ 한계적 성공(marginal compliance): 피강압국이 강압국 요구의 전체 혹

42) 논의 중인(시행되지 않은) 정책의 중단은 억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즉각 억지의 상황에서는 억지와 강압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논의를 감안하면, 이러한 정의는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43)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중지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복귀는 단순한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특정한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안에서 개정된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NATO 가입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전의 헌법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복귀로 이해할 수 있다.

44) 성공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Sechser and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의 성공 개념의 정의와 심사자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45) 여기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비교적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최소한 정책적 효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기간을 택했다.

은 일부를 수용하지만, 이것이 6개월 이내에 변경되는 경우이다. 한계적 성공은 강압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에 놓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실패(non-compliance): 강압국의 요구가 피강압국에 전혀 수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4.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 강압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 강압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시간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2024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한다. 시기를 2024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2024년 이후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의 핵 강압은 최소 수십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SIS 웹사이트에는 2022년 전쟁 시작부터 2023년 7월의 시기까지 푸틴 대통령을 포함,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핵 위협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핵에 관한 언급은 무려 236 차례에 달한다.⁴⁶⁾ 이는 연구 범위 기간인 2024년까지 확장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핵 위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 러시아 여러 고위층 인사가 핵을 언급했다면, 핵 위협은 중복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한 요구가 부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핵 위협이 독자적 핵 강압 에피소드에 해당하지 않을

46) CSIS Project on Nuclear Issues, “Nuclear Signaling During the War in Ukraine,” CSIS, accessed April 5, 2026, <https://nuclearrussiaukraine.csis.org/>.

수도 있으며, 핵 위협이 핵 강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핵 강압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러-우 전쟁의 사례 내에 여러 핵 강압 사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사례 내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한 사례 내에 여러 강압의 사건(이하 에피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에피소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선택의 편향성(종속변수 중심의 선택)⁴⁷⁾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Russia Ukraine War, nuclear coercion, nuclear compellence, nuclear threats”과 같은 검색어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찾았다. 그리고 후보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 주요 해외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다룬 에피소드를 택했다. 이는 에피소드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해 에피소드의 맥락을 이해한 후에, 핵 강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기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핵 강압의 기준을 충족하는 에피소드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만약 위에서 적용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기사들이 러시아 핵 강압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와 상관관계에 있다면, 에피소드의 선택에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핵 강압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쓰인 것이므로, 에피소드 선택의 편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핵 강압 에피소드에 대한 전수조사 후에 임의로 택한 에피소드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수십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

47) 의도적인 종속변수 중심의 사례 선택은 사실상 가설 검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 Gary King, Robert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28-137.

정되는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일부만 택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치 검증(congruence testing)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가설에서 제시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의 가설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⁴⁸⁾ 이 방법은 과정 추적(process tracing)⁴⁹⁾과 같이 개별 사례의 인과 관계를 면밀히 추적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과 관계의 명확한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검증할 에피소드의 수와 지면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일치 검증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핵 강압 정책은 전황의 변화, 특히 미국과 NATO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의 지원 정책의 변화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례 분석에서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러시아의 주요한 6가지 핵 강압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러시아 핵 강압 에피소드

(1) 전쟁 개시와 핵 위협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TV 연설에서 서방의 전쟁 개입을 경

48)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181-204.

49) 과정 추적의 방법에 대해서는 George and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205-232 참고.

고하는 메시지를 내보냈다.⁵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거나, 특히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는 자가 누구이든, 러시아는 즉각 대응할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강조는 저자에 의한 것임)

이 위협은 우선 서방의 개입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억지 위협(deterrent threats)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위협은 대우크라이나 지원 철회까지 겨냥한 강압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즉, 단순히 개입을 넘어서, 기존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동반관계 헌장(U.S.-Ukraine Charter on Strateg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⁵¹⁾ 이 문서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독자 방어 능력과 지원과 NATO 가입 지원 의사 등을 밝히고 있다.⁵²⁾

50) The Kremli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bruary 24, 202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51) Anders Åslund, “New US-Ukraine Charter Underlines American Commitment to Ukrainian Security,”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November 15, 2021,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new-us-ukraine-charter-underlines-american-commitment-to-ukrainian-security/>.

5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person, “U.S.-Ukraine Charter on Strategic Partnership,” *Media Note*, November 10, 2021, <https://2021-2025.state.gov/u-s-ukraine-charter-on-strategic-partnership/?safe=1>.

하지만 이러한 안보 지원 정책은 러시아의 핵 위협 직후 신중해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의 MIG-29기 지원 제안을 들 수 있다. 폴란드는 보유한 모든 MIG-29 제트기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놀란 미국은 확전 위험 등을 거론하여 이 요구를 거절했다.⁵³⁾ 이는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신중해진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억지와 강압의 중간에 놓여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압의 성공 면에서는 미국의 신중한 태도는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러시아의 핵 강압은 주로 NATO를 겨냥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를 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러시아 평화안(2022년 2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이 합의된다. 2월 28일로 예정된 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핵전략군에 비상 대기 태세를 발령하면서, 특수 전투 임무 체제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다.⁵⁴⁾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에 앞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형

53) Julian Borger and Patrick Wintour, "U.S. Dismisses Polish Plan to Provide Fighter Jets to Be Sent to Ukraine," *The Guardian*, March 9,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r/08/poland-mig-29-jets-us-ukraine>.

54) Andrew Roth, Shaun Walker, Jennifer Rankin and Julian Borger, "Putin Signals Escalation as He Puts Russia's Nuclear Force on Alert," *The Guardian*, February 28,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

적인 핵 강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당시 러시아의 평화안은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의 할양,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NATO 가입 포기, 및 비무장화(군을 5만 명 이하로 축소) 등 우크라이나로서는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⁵⁵⁾ 이 안은 모두 심대한 현상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는 이전 헌법으로 되돌아가라는 현상 복귀 요구였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 추진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수정을 필요로 했다.⁵⁶⁾ 그 결과 28일 시작된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⁵⁷⁾

feb/27/vladimir-putin-puts-russia-nuclear-deterrence-forces-on-high-alert-ukraine.

55) Yelizaveta Surnacheva and Systema, “Early Peace Plan Shows Russia’s Intent to Neutralize Ukraine,” *Radio Free Europe*, November 4, 2024, <https://www.rferl.org/a/russia-ukraine-peace-deal-putin-draft-treaty/33183664.html>; Peter Dickinson, “Putin’s 2022 ‘Peace Proposal’ Was a Blueprint for the Destruction of Ukraine,”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November 5,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putins-2022-peace-proposal-was-a-blueprint-for-the-destruction-of-ukraine/>.

56) “Ukraine President Signs Constitutional Amendment on NATO, EU Membership,” *Radio Free Europe*, February 19, 2019, <https://www.rferl.org/a/ukraine-president-signs-constitutional-amendment-on-nato-eu-membership/29779430.html>.

57) “Russia, Ukraine Complete Peace Talks for Now, Will Hold Second Round,” *Reuters*, February 28, 2022, <https://www.reuters.com/world/russia-ukraine-complete-peace-talks-now-will-hold-second-round-2022-02-28/>.

정리하면, 러시아의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현상 변경 및 현상 복귀를 요구하는 핵 강압이었으며, 이는 거부되었다.

(3) 우크라이나 대반격(2022년 9월)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은 같은 해 한 차례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대반격(Kharkiv Counteroffensive)이다. 9월에서 10월 초에 걸친 이 대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우크라이나 동북지역의 하르키우주의 쿠피안스크와 이지움 등의 지역을 회복했다.⁵⁸⁾

이 반격에 당황한 러시아 지도부는 핵 위협으로 대응했다. 푸틴은 2022년 9월 21일 TV 연설에서 영토 수호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수호할 것이며, 이는 허세(bluff)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연설은 우크라이나 북동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패 이후에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NATO 등의 서구 개입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이 연설에서 서구의 핵 강압(nuclear blackmail)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핵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연설에서 푸틴은 30만 명을 동원하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는데, 이러한 군 동원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역시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

58) Mark Townsend, Lorenzo Tondo and Isobel Koshiw, "Ukrainian Counter-Offensive in North-East Inflicts a Defeat on Moscow," *The Guardian*, September 10,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sep/10/ukrainian-forces-kupiansk-advances-north-east-russia-izyum>.

불어 러시아는 자신의 점령 지역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이 지역들을 자신의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진격 중단과 점령지 포기를 요구했다.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신이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⁵⁹⁾ 하지만, 젤린스키는 이러한 요구를 즉각 거절했다.⁶⁰⁾ 후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당시 미국은 푸틴의 핵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병합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다.⁶¹⁾

정리하면, 러시아의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에게는 공세의 중단과 점령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요구(현상 변경에 대한 인정 요구)였고, 서방 세계에는 지원의 중단과 점령 영토에 대한 인정 요구였지만, 이 핵 강압 요구는 모두 거부되었다.

59)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주로 아래 두 개의 기사를 참고. Guy Faulconbridge and Caleb Davis, "Medvedev Raises Spectre of Russian Nuclear Strike," *Reuters*, September 27, 202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medvedev-warns-west-that-nuclear-threat-is-not-bluff-2022-09-27>; Sam Meredith, "Putin's Nuclear Threats Raise the Risk of Disaster," *CNBC*, September 23, 2022, <https://www.cnn.com/2022/09/23/russia-ukraine-war-putins-nuclear-threats-raise-the-risk-of-disaster.html>.

60) "Zelensky Says Does Not Believe Putin Will Use Nuclear Arms," *KyivPost*, September 21, 2022, <https://www.kyivpost.com/post/1133>.

61) Jim Sciutto, "Exclusive: US Prepared 'Rigorously' for Potential Russian Nuclear Strike in Ukraine in Late 2022, Officials Say," *CNN*, March 9, 2024, <https://edition.cnn.com/2024/03/09/politics/us-prepared-rigorously-potential-russian-nuclear-strike-ukraine>.

(4) 램스타인 서방 탱크 지원 협의(2023년 1월)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들은 2023년 1월 20일 독일의 미군 공군 기지인 램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협의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바로 전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의 지원을 경고하는 핵 위협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 메시지에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전쟁 패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한다면,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예정된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겨냥한 강압 메시지였다.⁶²⁾

다음 날인 1월 20일 램스타인 회의에서 독일은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다. 독일은 모든 동맹국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특별히 이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는 없었다. 독일은 레오파드 탱크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를 연계하면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합의한다면, 자신도 제공할 뜻을 밝혔다.⁶³⁾ 이러한 독일의 연계정책에 바이든 대통령은

62) Guy Faulconbridge and Felix Light, “Putin Ally Warns NATO of Nuclear War if Russia Is Defeated in Ukraine,” *Reuters*, January 19,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utin-ally-medvedev-warns-nuclear-war-if-russia-defeated-ukraine-2023-01-19/>.

63) Max Hunder and Madeline Chambers, “NATO Allies Pledge More Arms for Ukraine, Germany Holds Out on Tanks,” *Reuters*, January 18,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berlin-sets-condition-us-exports-german-tanks-ukraine-source-2023-01-18/>; “Berlin will Allow Exports of German Tanks to Ukraine If U.S. Sends Its Tanks-Source,” *Reuters*, January 18,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berlin-will-allow-exports-german-tanks-ukraine-if-us-sends-its-tanks-source-2023-01-18/>.

약 1주일 후 마지못해 에이브럼스 탱크의 지원을 결정했다.⁶⁴⁾ 물론 메드베데프의 위협이 독일과 미국의 유보적 태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양국의 신중함을 환기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⁶⁵⁾ 하지만, 독일과 미국의 유보 결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강압의 효과는 한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러시아의 핵 위협은 서방세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독일과 미국의 공격성 무기에 대한 지원의 유보를 가져왔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적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마크롱 대통령의 NATO 지상군 투입 고려 주장(2024년 2월)

2024년 2월 2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지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유럽 국가들 간에 합의된 바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NATO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NATO 국가들에게 지상군 투입은 배제되었던 방안이었다.⁶⁶⁾

64) David E. Sanger, Erik Schmitt and Helene Cooper, "How Biden Reluctantly Agreed to Send Tanks to Ukrain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6, 2023, <https://www.nytimes.com/2023/01/25/us/politics/biden-abrams-tanks-ukraine-russia.html>.

65) Idrees Ali and Sabine Siebold, "Ramstein Summit Fails to Agree Leopard Tanks Deal for Ukraine," *Reuters*, January 20,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s-calls-countries-dig-deeper-ukraine-pressure-builds-tanks-2023-01-20/>.

66) Patrick Wintour, "Macron Refuses to Rule out Putting Troops on Ground

마크롱의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브는 NATO 지상군 투입이 초래할 위험을 묻는 질문에, “그러한 경우, (양측 간 충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러시아에게 NATO의 직접 개입은 최악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러시아 대변인의 답변은 핵확전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이를 후인 2월 29일, 푸틴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⁶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마크롱의 발언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독일 총리와 영국 외무장관 역시 지상군 파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⁶⁹⁾ 인과 관계의 측면에서

in Ukraine in Call to Galvanise Europe,” *The Guardian*, February 27,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feb/27/french-president-emmanuel-macron-ukraine-french-ground-troops>.

67) Guy Faulconbridge, “Kremlin Warns of Conflict with NATO if Alliance Troops Fight in Ukraine,” *Reuters*, February 27,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kremlin-warns-conflict-with-nato-if-alliance-troops-fight-ukraine-2024-02-27/>.

68) Holly Ellyatt, “Putin’s State of the Nation Focuses on Sovereignty, the West and Ukraine,” *CNBC*, February 29, 2024, <https://www.cnn.com/2024/02/29/putins-state-of-the-union-focuses-on-sovereignty-the-west-and-ukraine.html>.

69) Lipika Pelham and Lou Newton, “NATO Allies Reject Emmanuel Macron’s Idea of Troops to Ukraine,” *BBC News*, February 28, 202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8417223>.

볼 때, 푸틴의 연두교서 연설이 NATO 국가들의 마크롱 발언의 부정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나왔다는 점에서 푸틴의 핵 위협과 지상군 투입 철회의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푸틴의 이 발언은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크렘린 대변인의 발언은 NATO의 발언 진화 노력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또한 핵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상군 파병은 기존의 러시아의 핵 위협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NATO 국가들은 판단했을 수 있다. 물론 지상군 파병이 NATO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병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재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 강압의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 시사(2024년 9월)

2024년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안보회의에서 핵 독트린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푸틴은 이 회의의 서두에서 핵 독트린의 변경 배경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특히 한 가지 핵심적 변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⁷⁰⁾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러시아 연방에 대한 이들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70) Vladimir Soldatkin and Guy Faulconbridge, “Putin Issues Nuclear Warning to the West over Strikes on Russia from Ukraine,” *Reuters*, September 25,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utin-says-russia-reserves-right-use-nuclear-weapons-if-attacked-2024-09-25/>.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NATO 국가들이 기존에 유보하고 있던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앞서 9월 초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만나 영국의 Storm Shadow와 미국의 ATACMS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했다.⁷¹⁾ 이에 대해 푸틴은 이들의 만남에 앞서 NATO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승인은 NATO와 러시아의 직접 대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⁷²⁾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문제가 푸틴의 핵 독트린 변경을 추동한 하나의 요인이라면, 또 하나는 2024년 8월에 이루어졌던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작전이었다. 이 군사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⁷³⁾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 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 그렇지 않으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과, NATO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을 통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즉, NATO의 지원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NATO와

71) “UK’s Starmer in Washington for Talks with Biden on Ukraine Missile Use,” *Reuters*, September 13, 2024, <https://www.reuters.com/world/uk-starmer-washington-talks-with-biden-ukraine-missile-use-2024-09-13/>.

72) Luke Harding, “Putin: Lifting Ukraine Missile Restrictions Would Put NATO ‘at War’ with Russia,” *The Guardian*, September 12,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sep/12/putin-ukraine-missile-restrictions-nato-war-russia>.

73) Peter Dickinson, “Ukraine’s Invasion of Russia Is Erasing Vladimir Putin’s Last Red Lines,”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August 11,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ukraines-russian-invasion-is-erasing-vladimir-putins-last-red-lines/>.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 핵으로 응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변경된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서는 핵 사용의 임계점을 낮추었다. 즉, 기존의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에 처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중대한 위협(critical threat)”에 처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⁷⁴⁾

하지만 이러한 강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젤린스키는 푸틴의 핵 사용 위협은 공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⁷⁵⁾ 미사일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⁷⁶⁾ NATO에 대한 효과는 앞서 탱크 공급 사례와 유사하다. 미국은 9월부터 11월까지 내부의 논쟁을 거쳐 11월 17일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 즉, 정책 실행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핵 강압이 이를 막지는 못했다.⁷⁷⁾

정리하면,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단, 미

74) Darryl G. Kimball, “Russia Revises Nuclear Use Doctrine,”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24, <https://www.armscontrol.org/act/2024-12/news/russia-revises-nuclear-use-doctrine>.

75) Warren Murray, “Ukraine War Briefing: Kursk Proves Putin’s Red Lines Are Bluff, Says Zelenskiy,” *The Guardian*, August 20,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20/ukraine-war-briefing-kursk-proves-putins-red-lines-are-bluff-says-zelenskiy>.

76) Pjotr Sauer, “Ukraine Fires US-Made ATACMS Missiles into Russia after Ban Lifted by Biden,” *The Guardian*, November 19,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nov/19/putin-warns-us-over-using-long-range-missiles-by-signing-new-nuclear-doctrine-ukraine>.

77) Mike Stone and Humeyra Pamuk, “Biden Allows Ukraine to Use US Arms to Strike inside Russia,” *Reuters*, November 17, 2024, <https://www.reuters.com/world/biden-lifts-ban-ukraine-using-us-arms-strike-inside-russia-2024-11-17/>.

국의 미사일 지원 중단을 의도한 핵 강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미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의 지연을 낳았다는 점에서 한계적 성공이었다.

2) 러시아 핵 강압 사례에 관한 종합적 논의

이 소절에서는 핵 강압의 에피소드의 검증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함의에 대해 간략히 논하기로 한다.

우선, <표 2>에는 가설 검증의 결과가 간략히 에피소드별로 요약되어 있다. 방어적 목적의 핵 강압이 공격적 목적의 핵 강압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일정 정도 지지되었다. 변경 요구는 어김없이 모두 실패로 귀결된 반면, 중지 요구는 부분적, 한계적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정 정도 지지되었다는 의미는 성공의 정도가 한계에 그치거나 일부 사례에서 실패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중지 목적의 핵 강압도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실효성이 달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방어적인 성격의 마크롱 에피소드의 경우 핵 강압은 완전한 성공에 가까웠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한계적인 성공 혹은 실패를 결과했다. 이 결과는 요구가 방어적일수록 위협의 신뢰성이 높다는 이론과 부합한다.

현상 복귀의 에피소드는 하나에 불과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번째 가설은 부인되지는 않지만, 명확히 지지되지는 않았다.

둘째로, 핵 강압의 결과는 피강압국의 결의 수준에 따라 나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강압은 요구 정도(중지/

복귀/변경)와 상관없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강압 실패는 핵 강압 실효성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선택효과’로도 설명 가능하다. 즉,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영토를 지키겠다는 결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결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이를 감당할 의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러시아의 핵 위협을 통한 위기 고조는 통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 국가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수준의 이해관계나 결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핵 확전을 우려해 신중했고, 사안에 따라 러시아의 레드라인은 어디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 경우, 러시아의 핵 강압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결의 수준의 차이가 강압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이 유의미하게 검증되기 위해서는 피강압국의 결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높은 결의 수준에 따른 선택효과를 고려할 때, 앞서 가설 검증의 타당성은 좀 더 신중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선택효과로 인해 핵 강압의 실효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영향을 억지 혹은 강압의 관점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가령 사우어(Tom Sauer)는 핵 강압보다는 핵 억지가 효과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고, 브루스가드(Kirstin Ven Bruusgaard)는 푸틴이 결국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압의 실패로, 반면 버시보(Alexander Vershbow)와 엘리슨(Graham Allison)은 서구의 신중함을 낳았다는 점에서 강압이 어느 정도 성공했

〈표 2〉 러시아의 6가지 핵 강압 에피소드 결과 요약

	사건	대상	요구	성공 여부
Ep. 1	전쟁 개시	NATO	중지	부분적 성공
Ep. 2	러시아 평화안	우크라이나	변경/복귀	실패
Ep. 3	우크라이나 9월 대반격	우크라이나	변경/중지	실패
		NATO	변경/중지	실패
Ep. 4	탱크 지원	NATO	중지	한계적 성공
Ep. 5	마크롱 지상군 투입 논란	NATO	중지	완전한 성공
Ep. 6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	NATO	중지	한계적 성공
		우크라이나	중지	실패

변경: 현상 변경; 복귀: 현상 복귀; 중지: 행동 중지

자료: 저자 작성

다고 보고 있다.⁷⁸⁾ 이처럼 강압의 성공 여부는 동일한 결과에 대해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in the eye of the beholder)’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트 외(Arndt, Horovitz and Onderco)는 러시아가 강압 요구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핵 금기

78) Tom Sauer, “How Useful Are Nuclear Weapons in Practice? Case-Study: the War in Ukraine,” 194-210; Alexander Vershbow, “How the United States and NATO Can Deal with Russian Nuclear Coercion in Ukraine,”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6, 2023, <https://thebulletin.org/2023/06/how-the-united-states-and-nato-can-deal-with-russian-nuclear-coercion-in-ukraine/>; Kristin Ven, Bruusgaard, “How Russia Decides to Go Nuclear,” *Foreign Affairs*, February 6,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how-russia-decides-go-nuclear>; Roy Allison, “Averting Acute Escalation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International Affairs* 101, no. 5 (2025): 1769-1791.

와 같은 규범적 요소의 작동으로 인해 러시아의 핵 강압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⁷⁹⁾

기존 연구와 비교, 본 연구의 의의는 핵 강압의 개념을 단순히 세분화해서 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근거하여 방어적 핵 강압과 공격적 핵 강압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단순히 러시아의 핵 강압의 실패 혹은 성공 여부를 따지기보다 사례 내 여러 에피소드에 나타난 강압 정도의 차이와 성공 정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 사례 내에서도 다양한 강압의 양상과 결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5. 결론: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바탕으로 러시아 핵 강압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조지의 강압 개념의 세분화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강압을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행동 중지’, 상태를 이전으로 돌리는 ‘현상 복귀’, 그리고 강제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공세적 목적의 ‘현상 변경’을 추구할 때 강압국이 자신의 결의(resolve)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핵 강압 위협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방어적 성격의 강압인 ‘행동 중지’와 ‘현상 복귀’는 공세적 강압보다 상대적으로 달성 가

79) Anna C Arndt, Liviu Horowitz and Michael Onderco, “Russia’s Failed Nuclear Coercion against Ukraine,” *Washington Quarterly* 46, no. 3 (2023): 179.

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러-우 전쟁의 6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행동의 중지와 같은 매우 방어적인 성격의 강압이 제한적으로 성공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핵 강압의 성공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기존 학계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핵 강압에서 선택효과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간략히 논하기로 한다. 특히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현상 변경적인 목적의 핵 강압의 실효성이 작다는 점은 공세적인(현상 변경적인) 핵 도발의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핵 사용 자체가 초래하는 정치적 비용(규범적 비난을 포함)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할적 이익이 걸리지 않은 문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의 신뢰성은 작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북한의 강압적 핵 도발을 우려하지만, 본 연구를 포함, 여러 기존의 연구들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안정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어적 측면에서의 강압이 유효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강압과 역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즉각 역지 혹은 강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분쟁이나 위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강압에 대한 유인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200여 차례 이상의 핵 위협이 발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수많은 핵 위협은 핵 사용의 임계점을 낮추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타넨월드(Nina Tannenwald)는 국내적 “핵 광신주의(nuclear fanaticism)”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핵 광신주의는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나치즘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했다.⁸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설정을 통한 남한 적대시 정책은 핵 사용의 임계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 가지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적대성이 핵 사용의 임계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통일 포기는 북한의 강압 가능성을 낮추는 시그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핵 강압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활적 이익의 문제여야 한다. 하지만, 일단 통일을 포기한 입장이라면 정권의 생존을 제외하면 사활적 이익의 문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므로, 남한에 대한 핵 강압의 유인은 크게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푸틴의 핵 사용 임계점을 높인 요소 중의 하나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우호국의 간섭이었다.⁸¹⁾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

80) Nina Tannenwald, “The Bomb in the Background: What the War in Ukraine Has Revealed about Nuclear Weapons,” *Foreign Affairs*, February 24,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bomb-background-nuclear-weapons>.

81) Tannenwald, “The Bomb in the Background”.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북에 핵 금기를 꾸준히 권고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핵 금기 규범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임계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핵 금기 규범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⁸²⁾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본 미국의 행동처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접근을 취함으로써, 소규모의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투고: 2026.07.06. / 수정: 2026.07.30. / 채택: 2026.08.03.

82) 고상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국방연구』 제66권 4호(2023), 32-33.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논문

고상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국방연구』 제66권 4호(2023), 23-40.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2012), 57-83.

이만석·김선홍·함형필. “북한의 핵강압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9권 3호(2023), 25-56. <https://doi.org/10.22883/jdps.2023.39.3.002>.

2. 국외 자료

1) 단행본

Art, Robert J. “Coercion: An Analytical Overview.” In *Coercion: The Power to Hurt*, edited by Kelly M. Greenhill and Peter Krause, 3-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Art, Robert J. “Int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edited by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3-2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Betts, Richard K.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Bundy, McGeorge. “The Unimpressive Record of Atomic Diplomacy.” In *The Choice: Nuclear Weapons Versus Security*, edited by Gwyn Prins, London: Chatto & Windus·The Hogarth Press, 1984.

George, Alexander L. “Foreword.” In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edited by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 Jervis, Robert.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King, Gary, Robert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roenig, Matthew. *The 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Why Strategic Superiority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Lauren, Paul Gordon. "Theories of Bargaining with Threats of Force." In *Diplomacy: New Approaches in History, Theory, and Policy*, edited by Paul Gordon Lauren. London: The Free Press, 1979.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Pape, Robert A.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Powell, Robert. *Nuclear Deterrence Theory: The Search for Credi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Sechser, Todd S. "A Bargaining Theory of Coercion." In *Coercion: The Power to Hurt*, edited by Kelly M. Greenhill and Peter Kra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5-76.
- Sechser, Todd S.,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 논문

- Allison, Roy. "Averting Acute Escalation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International Affairs* 101, no. 5 (2025): 1769-1791.
- Altman, Dan. "Red lines: Enforcement, Declaration, and Ambiguity in the Cuban Missile Crisi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6, no. 5 (2023): 977-1009.
- Arndt, Anna C., Liviu Horovitz, and Michael Onderco. "Russia's Failed Nuclear Coercion against Ukraine." *Washington Quarterly* 46, no. 3 (2023): 167-184.
- Beardsley, Kyle, and Victor Asal. "Winning with the Bomb."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no. 2 (2009): 278-301.
- Blechman, Barry M., and Douglas M. Hart. "The Political Utility of Nuclear Weapons: The 1973 Middle East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7, no. 1 (1982): 132-156.
- Fearon, James D.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no. 3 (1995): 379-414.
- Fearon, James D. "Selection Effects and Deterr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no. 1 (2002): 5-29.
- Gelpi, Christopher F., and Michael Griesdor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3 (2001): 633-647.
- Horowitz, Michael.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Does Experience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 no. 2 (2009): 234-257.
- Horowitz, Michael, and Dan Reiter. "When Does Aerial Bombing Work? Quantitative Empirical Tests, 1917-1999."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 no. 2 (2001): 147-173.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no. 2 (1979): 363-391.

- Kroenig, Matthew. "Nuclear Superiority and the Balance of Resolve: Explaining Nuclear Crisis Outco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no. 1 (2013): 141-171.
- Sauer, Tom. "How Useful Are Nuclear Weapons in Practice? Case-Study: the War in Ukraine."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7, no. 1 (2024): 194-210.
- Sechser, Todd S. "Militarized Compellent Threats, 1918-2001."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8, no. 4 (2011): 377-401.
- Sechser, Todd S., and Matthew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no. 4 (2013): 173-195.
- Trachtenberg, Marc.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10, no. 1 (1985): 137-163.

3) 기타 자료

- Åslund, Anders. "New US-Ukraine Charter Underlines American Commitment to Ukrainian Security."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November 15, 2021.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new-us-ukraine-charter-underlines-american-commitment-to-ukrainian-security/>.
- Ali, Idrees, and Sabine Siebold. "Ramstein Summit Fails to Agree Leopard Tanks Deal for Ukraine." *Reuters*, January 20,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s-calls-countries-dig-deeper-ukraine-pressure-builds-tanks-2023-01-20/>.
- Borger, Julian, and Patrick Wintour. "U.S. Dismisses Polish Plan to Provide Fighter Jets to Be Sent to Ukraine." *The Guardian*, March 9,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mar/08/poland-mig-29-jets-us-ukraine>.
- Bruusgaard, Kristin Ven. "How Russia Decides to Go Nuclear." *Foreign Affairs*, February 6,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how->

russia-decides-go-nuclear.

CSIS Project on Nuclear Issues. "Nuclear Signaling During the War in Ukraine," CSIS, <https://nuclearrussiaukraine.csis.org/>.

Dickinson, Peter. "Putin's 2022 'Peace Proposal' Was a Blueprint for the Destruction of Ukraine."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November 5,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putins-2022-peace-proposal-was-a-blueprint-for-the-destruction-of-ukraine/>.

Dickinson, Peter. "Ukraine's Invasion of Russia Is Erasing Vladimir Putin's Last Red Lines." *UkraineAlert*, Atlantic Council, August 11,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ukraines-russian-invasion-is-erasing-vladimir-putins-last-red-lines/>.

Downes, Alexander B. and Charles L. Glaser. "Compelling with the Bomb? Revisiting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Compellent Threats." Unpublished Manuscrip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24. https://ondisc.nd.edu/assets/566345/downes_glaser_compelling_wit_h_the_bomb_jan2024_ndisc.pdf.

Ellyatt, Holly. "Putin's State of the Nation Focuses on Sovereignty, the West and Ukraine." *CNBC*, February 29, 2024. <https://www.cnbc.com/2024/02/29/putins-state-of-the-union-focuses-on-sovereignty-the-west-and-ukraine.html>.

Faulconbridge, Guy. "Kremlin Warns of Conflict with NATO if Alliance Troops Fight in Ukraine." *Reuters*, February 27,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kremlin-warns-conflict-with-nato-if-alliance-troops-fight-ukraine-2024-02-27/>.

Faulconbridge, Guy, and Caleb Davis. "Medvedev Raises Spectre of Russian Nuclear Strike." *Reuters*, September 27, 202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medvedev-warns-west-that-nuclear-threat-is-not-bluff-2022-09-27/>.

- Faulconbridge, Guy, and Felix Light. "Putin Ally Warns NATO of Nuclear War if Russia Is Defeated in Ukraine." *Reuters*, January 19,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utin-ally-medvedev-warns-nuclear-war-if-russia-defeated-ukraine-2023-01-19/>.
- Harding, Luke. "Putin: Lifting Ukraine Missile Restrictions Would Put NATO 'at War' with Russia." *The Guardian*, September 12,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sep/12/putin-ukraine-missile-restrictions-nato-war-russia>.
- Hunder, Max and Madeline Chambers. "NATO Allies Pledge More Arms for Ukraine, Germany Holds Out on Tanks." *Reuters*, January 18,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berlin-sets-condition-us-exports-german-tanks-ukraine-source-2023-01-18/>.
- Kimball, Darryl G. "Russia Revises Nuclear Use Doctrine."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24. <https://www.armscontrol.org/act/2024-12/news/russia-revises-nuclear-use-doctrine>.
- Meredith, Sam. "Putin's Nuclear Threats Raise the Risk of Disaster." CNBC, September 23, 2022. <https://www.cnbc.com/2022/09/23/russia-ukraine-war-putins-nuclear-threats-raise-the-risk-of-disaster.html>.
- Murray, Warren. "Ukraine War Briefing: Kursk Proves Putin's Red Lines Are Bluff, Says Zelenskiy." *The Guardian*, August 20,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20/ukraine-war-briefing-kursk-proves-putins-red-lines-are-bluff-says-zelenskiy>.
-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person. "U.S.-Ukraine Charter on Strategic Partnership." *Media Note*, November 10, 2021. <https://2021-2025.state.gov/u-s-ukraine-charter-on-strategic-partnership/?safe=1>.
- Pelham, Lipika, and Lou Newton. "NATO Allies Reject Emmanuel Macron's Idea of Troops to Ukraine." *BBC News*, February 28, 202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8417223>.

- "Russia, Ukraine Complete Peace Talks for Now, Will Hold Second Round," *Reuters*, February 28, 2022. <https://www.reuters.com/world/russia-ukraine-complete-peace-talks-now-will-hold-second-round-2022-02-28/>.
- Roth, Andrew, Shaun Walker, Jennifer Rankin, and Julian Borger. "Putin Signals Escalation as He Puts Russia's Nuclear Force on Alert," *The Guardian*, February 28,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feb/27/vladimir-putin-puts-russia-nuclear-deterrence-forces-on-high-alert-ukraine>.
- Sauer, Pjotr. "Ukraine Fires US-Made ATACMS Missiles into Russia after Ban Lifted by Biden," *The Guardian*, November 19,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nov/19/putin-warns-us-over-using-long-range-missiles-by-signing-new-nuclear-doctrine-ukraine>.
- Sanger, David E., Erik Schmitt and Helene Cooper. "How Biden Reluctantly Agreed to Send Tanks to Ukraine," *New York Times*, January 26, 2023. <https://www.nytimes.com/2023/01/25/us/politics/biden-abrams-tanks-ukraine-russia.html>.
- Sciutto, Jim. "Exclusive: US Prepared 'Rigorously' for Potential Russian Nuclear Strike in Ukraine in Late 2022, Officials Say," *CNN*, March 9, 2024. <https://edition.cnn.com/2024/03/09/politics/us-prepared-rigorously-potential-russian-nuclear-strike-ukraine>.
- Soldatkin, Vladimir, and Guy Faulconbridge. "Putin Issues Nuclear Warning to the West over Strikes on Russia from Ukraine," *Reuters*, September 25,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utin-says-russia-reserves-right-use-nuclear-weapons-if-attacked-2024-09-25/>.
- Stone, Mike and Humeyra Pamuk. "Biden Allows Ukraine to Use US Arms to Strike inside Russia," *Reuters*, November 17, 2024. <https://www.reuters.com/world/biden-lifts-ban-ukraine-using-us-arms-strike-inside-russia-2024-11-17/>.
- Surnacheva, Yelizaveta and Systema. "Early Peace Plan Shows Russia's Intent

- to Neutralize Ukraine.” *Radio Free Europe*, November 4, 2024. <https://www.rferl.org/a/russia-ukraine-peace-deal-putin-draft-treaty/33183664.html>.
- Tannenwald, Nina. “The Bomb in the Background: What the War in Ukraine Has Revealed about Nuclear Weapons.” *Foreign Affairs*, February 24,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bomb-background-nuclear-weapons>.
- The Kremli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bruary 24, 202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 Townsend, Mark, Lorenzo Tondo, and Isobel Koshiw. “Ukrainian Counter-Offensive in North-East Inflicts a Defeat on Moscow.” *The Guardian*, September 10,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sep/10/ukrainian-forces-kupiansk-advances-north-east-russia-izyum>.
- “Ukraine President Signs Constitutional Amendment on NATO, EU Membership.” *Radio Free Europe*, February 19, 2019. <https://www.rferl.org/a/ukraine-president-signs-constitutional-amendment-on-nato-eu-membership/29779430.html>.
- “UK’s Starmer in Washington for Talks with Biden on Ukraine Missile Use.” *Reuters*, September 13, 2024. <https://www.reuters.com/world/uks-starmer-washington-talks-with-biden-ukraine-missile-use-2024-09-13/>.
- Vershbow, Alexander. “How the United States and NATO Can Deal with Russian Nuclear Coercion in Ukraine.”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6, 2023. <https://thebulletin.org/2023/06/how-the-united-states-and-nato-can-deal-with-russian-nuclear-coercion-in-ukraine/>.
- Wintour, Patrick. “Macron Refuses to Rule out Putting Troops on Ground in Ukraine in Call to Galvanise Europe.” *The Guardian*, February 27,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feb/27/french-president->

emmanuel-macron-ukraine-french-ground-troops.

“Zelensky Says Does Not Believe Putin Will Use Nuclear Arms,” *Kyiv Post*,
September 21, 2022. <https://www.kyivpost.com/post/1133>.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ussia's Nuclear Compellence in the Case of the War in Ukrain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Chung, Jaewook (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ussia's nuclear compellent threats during the war in Ukraine. It distinguishes between defensive compellence (to preserve the status quo) and offensive compellence (to change it), yielding two hypotheses: (1) defensive nuclear compellent threats are more likely to succeed than offensive ones; and (2) within defensive compellence, demands to halt ongoing or contemplated actions are more likely to succeed than demands to reverse outcomes to the status quo ante. Using congruence testing across six salient episodes (2022–2024), the evidence provides moderate support for Hypothesis 1, while Hypothesis 2 remains indeterminate due to the paucity of relevant episodes. The analysis also raises the likelihood of selection effects tied to target resolve: nuclear threats had little leverage over Ukraine, facing existential stakes, but induced caution and prudence

among NATO members with relatively lower stakes. The article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Keywords: nuclear compellence, effectiveness, Russia-Ukraine War, Russia's nuclear compellenc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